

언론동향(11. 17.)

《언론보도 목차》

1. (동아일보) “자! 떠나자...경기 둘레길 860km 걸으러” 2
2. (경기일보) 오늘 ‘평화경제 오픈랩’ 최종발표회 청년들 남북 교류협력 모색 3
3. (헤럴드경제) 다시 열린, ‘DMZ 평화의길’ 힐링을 예약하세요 4
4. (노컷뉴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대 확산 5

“자! 떠나자... 경기 둘레길 860km 걸으러”

15개 시군 연결 도보여행길 개통
평화누리길 등 4개 권역 60개 코스
문화유적·촬영지 등 볼거리 풍부
체험프로-다른 테마길과 연결 추진

경기 연천군 신탄리역은 경원선의 대광리역과 백마고지 중간역이다. 2019년 4월부터 경원선을 운행하던 모든 열차가 중단됐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신탄리역에서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지나 내산리삼보쉼터까지 가는 약 16km의 넓은 흙길과 울창한 숲길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산리삼보쉼터에서 포천 중미저수지까지 자연경관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15km의 새로운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연결된 860km 구간을 걸어서 돌 수 있는 '경기 둘레길' 전 구간을 15일 개통했다.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이다.

시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둘레길을 활용하고 시군 경계에서 끊어진 숲길과 마을 안길, 하천길, 제방길 구간을 연결해 문화 역사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보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둘레길 코스는 △평화누리길(김포~연천·186km) △숲길(연천~양평·245km) △물길(여주~안성·167km) △갯길(평택~부천·262km)



등 4개 권역에 60개 코스로 구성됐다. 51개 코스는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양평 단월산 임도를 포함한 국유림 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 (gg.go.kr/dulegil)에서 방문 신고를 예약한 뒤 걸을 수 있다. 도는 혹시나 둘레길 코스에서 사고가 나가거나 다치면 1인당 최대 1억 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도 가입했다.

경기 둘레길 첫 코스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서 철책과 함께 14km 구간이 시작된다. 해안 철조망을 따라 40분 정도 걸어가면 조선시대 수군이 주둔하던 덕포진이 나온다. 사적 제292호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쇄암리쉼터를 거쳐 문수산성 남문 입구까지 자연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다.

대표적인 둘레길 중 하나인 안성 금광저수지 길은 총 14.6km로 낚시터로 이름난 마둔저수지에 조성된 수변탐방로를 돌아 걷는 코스다. 농로와 마을길을 지나면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석남사가 보인다. 해발 547m인 서운산 능선을 넘어 S라인 기둥으로 유명한 청룡사에서 마무리된다.

도는 올해 1월 우선 김포~연천~가평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약 344km의 시범 구간을 연결하고 양평~안성~부천 구간(516km)을 마무리했다. 앞서 도는 경기 안전성과 관광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둘레길 관광객 원조사 용역을 했다. 둘레길 주변에 분포된 포천 산정호수와 가평 용추계곡, 평택항교, 화성 공평항 등 경관이 아름답고 유서가 깊은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500m, 1000m 기준으로 관광자원을 분류하고 식당과 숙박자원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존 역사 및 문화, 관광지원과 연계해 인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 옛길과 권역별 테마길(실학자 의길, 남한산성길 등)과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코스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인 만큼 가벼운 짐과 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좋다”며 “코스 시점과 종점에서 완주 스탬프(도장)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별 상세 정보나 기타 둘레길 이용에 관한 내용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ikj@donga.com

경기일보

2021년 11월 17일 (수)
02면 중앙

오늘 '평화경제 오픈랩 최종발표회' 청년들 남북 교류협력 모색

경기도가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펼친다.

경기도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에서 '대한민국 청년 평화 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최종발표회가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서울·인천시가 공동주최한다. 대상은 평화경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의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서 주최 측은 지난 6~7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상상공모전을 열어 IT·4차산업, 공정여행, 국제개발, 문화예술, 북한·도시개발,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총 551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중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51개 팀을 선발한 뒤 전문 퍼실리테이터, 남북 및 창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픈데이블을 통해 최종 6개 팀을 무순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다가치(남북한 일상문화를 체험하는 평화 다과) ▲데프누리(남북 농인을 위한 남북 수어 여행 회화 책) ▲메타바인드(메타버스 속에서 연결되는 서울to평양) ▲으능정이 브루어리(북한식 기양주(酒) 주조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평화티콘(이모티콘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하울립(우리집에서 즐기는 북한식 밀키트) 등이다. 김창학기자

다시 열린 'DMZ 평화의 길' 힐링을 예약하세요



▲ 고양 장항습지
◀ 양구 두타연 한반도 모양의 물길
▼ 강화나들길 16코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당일 3일전에 한해 예약할 수 있다.

이 노선은 2019년 4월부터 3개(파주, 철원, 고성) 코스를 시범 개방해 관심을 받았으나, 그해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했다.

이번에는 노선 정비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3개 노선(연천, 철원, 인제)을 제외한 7개 노선을 개방한다. 파주와 고성만 재개방이고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는 첫 개방이다.

▶ 강화=강화전쟁박물관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도보 구간, 1.5km) → 대룡시장

▶ 김포=김포아트홀 → 사암리힐책길 → (도보 구간, 4.4km) → 예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 (도보 구간, 0.4km) → 전망대

▶ 고양=고양관광정보센터 → 행주산성역사공원 → (도보 구간, 1km) → 행주나루터 → 장항습지탐조대 → (도보 구간, 2.5km) → 통일촌근막사

▶ 파주=임진각 → 통일대학교입구 → 도라전망대

20일부터 7개 테마노선 개방

강화·김포·고양·파주·화천·양구·고성

백신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만 예약

→ 철거GP ※ 이번 개방에서는 철새 보호를 위해 도보 구간 제외

▶ 화천=화천읍배수펌프장 → 평화의담안호센터 → 북진로 → 양의대습지 → (도보 구간, 2km) → 오작교

▶ 양구=금강산가는길안내소 → 두타연 → 금강산가는길봉문 → (도보 구간, 2.7km) → 삼대교봉문

▶ 고성=고성평일전망대 → (도보 구간, 2.7km, A코스는 없고, B코스는 없음) → 금강봉문 → 금강산전망대

7개 테마노선 여행은 모두 무료다.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dmzwalk.닷넷)과 경기여행길 정보제공 모바일 앱 '두루누리'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구분하며, 파주 구간의 경우 철새 보호를 위해 도보 구간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번 개방은 문체, 통일, 국방, 향안, 환경부 5개 부처 합의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국제교류가 정상화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범정부적 공조를 한다.

합영훈 기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대 확산

강원CBS 박정민 기자 | 2021-11-15 13:38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강원도, 권역별 설명회 진행
추진방안 공유, 강원도민 역량 결집 나서기로



▲ 지난 6월 23일 국회 포럼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올바른 보안 인증서로 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차단되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김천수, 최윤 공동위원장)와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설치를 위한 강원도 권역별 설명회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영동권은 16일 강릉 씨마크호텔, 영서권은 2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연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군 공무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도민과 함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설치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천수 공동위원장(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은 "남북강원도로 갈라져 희생을 감내해 온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필수다. 조기 설치에 350만 강원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 공동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부회장)도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강원도민 모두 지지결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여야 대선후보자들의 강원도 대표공약에 포함됐고 이양수, 허영 국회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등 정부정책화와 입법화를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입법화를 위해 대국민 각종 매체홍보, 포럼, 캠페인 등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 메일